

**해양경찰청****보 도 자 료**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9. 13.(화) 15:00	배포 일시	2022. 9. 13.(화) 15:00
담당 부서	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언호 (032-835-2048)
		담당자	계 장 김종필 (032-835-2139) (010-2655-0891)

**추석 연휴 종합 안전대책 추진으로 평온한 바다 유지**

- 해양사고(총 52건)는 전년 대비 8% 증가하였으나, 사망사고는 단 1건도 없어 -

해양경찰청(청장 정봉훈)은 지난 8월 29일(월)부터 9. 12.(월)까지 15일간 추석 연휴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양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, 단 1건의 사망사고 없이 평온한 바다를 유지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방역의 생활화로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양사고 또한 전년보다 4건(8%)이 증가한 총 52건이 발생하였으나, 현장세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총 256명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단 1명의 사망자로 발생하지 않았다. 참고로 전년도 추석 연휴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올 해 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이 돋보인다.

올 해 해양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중 △주요관광지 등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강화, △여객선 등의 주요 항로상 경비함정 집중 배치, △다중이용선박 및 선착장 등 장비·시설물의 안전점검, △낚시 어선 등 안전위해행위 단속, △연안해역 내 안전순찰 및 관리 강화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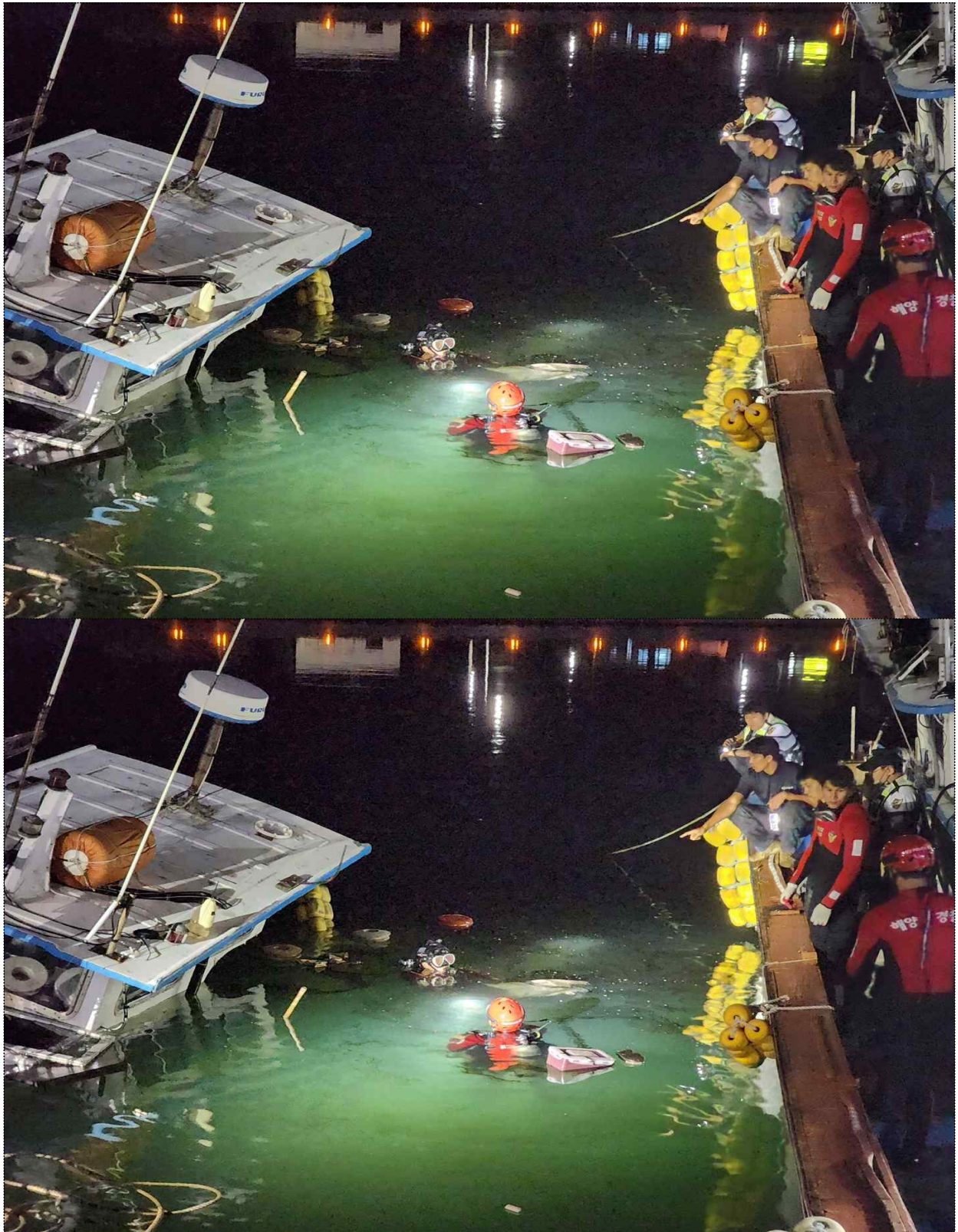
△ 24시간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등에 주력하였다.

참고로,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총 71.2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8%('21년 77.7만명)가 감소하였고, 해양경찰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대상 현장점검 및 안전계도를 2,193회 실시하였으며,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21건을 적발·단속하였다.

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친화적인 해양안전 정책으로 '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'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## □ 선박사고 (정박어선 침수사고)

- '22. 9. 9 (금) 22시경 서귀포시 모슬포항 내 정박 중인 어선에서 침수사고가 발생, 해양경찰구조대가 선내·외 수중수색 결과 승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.



□ 연안사고 (낚시객 고립사고)

- '22. 9. 10.(토) 14시경 태안군 만리포항 인근 갯바위에서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된 낚시객 2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였다.



- '22. 9. 11.(일) 14:30경 군산시 단등도에서 만조로 인해 고립된 낚시객 7명을 해양경찰이 레스큐 슬립웨이를 이용하여 구조하였다.

